



[라이프]  
와인사업 나선 대기업  
유통빅3 이어  
두산·한화도 합세  
니



Life

[바이오]  
일동제약  
코로나 치료제  
국내허가 정면돌파  
L2



# 폐암 의심자 속출한 ‘죽음의 급식실’... 인력·환경개선 시급

급식실 종사자 30%, 폐이상 소견 환기시설 개선 등 79억 예산 확보 노동 강도 경감 위해 자동화 제시 연대 “개선 관련 구체적 기준 필요”

‘폐암’ 유발이 우려된 교내 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현재까지 급식실 종사자 중 폐이상 소견자가 전체 30%에 달하는 상황으로 심각성이 주목됐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폐암’을 유발한다고 지적됐던 교내 급식실 환경이 생각보다 더욱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에서 조리 시 고온에서 산화되거나 발암성 물질이 연기와 섞이게 되면 일명 ‘요리 매연’이 된다. ‘요리 매연’이 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1월 울산 중구 모 초등학교 급식실의 모습이다. /뉴스시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결과’(지난해 10월 기준)에 따르면, 폐CT 검진을 끝낸 종사자 1만9306명 중 191명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현재 집계된 바로는 전국적으로 폐이상 소견자가 30% 달하는 상황이다.

서울 지역만 살펴보면, 검사가 마무리된 1640명 중 29명이 ‘폐암 의심자’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검진대상자 7700명 중 일부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했다. 최승복 서울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폐암 의심 종사자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와서 교육청 측도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전수 검진이 끝나는대로 결과를 확인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기시설 개선에 대해 환기 여건이 우려되는 158개교에 대한 지난해 전체 점검을 진행했고, 그 중 99개교에 대한 환기 개선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측에 따르면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된 예산은 79억2000만원으로, 올해 안으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급식실 종사자들의 노동강도 경감을 위해서는 일부 자동화와 위탁 업체 이용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식판과 수저 등을 수거해 세척한 다음 다시 배송해 주는 외부 서비스를 이용해 급식실의 업무를 줄여 보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정문 주차장에서

는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천막농성을 18일째 펼치고 있다.

연대는 우선적으로 배치 기준, 환기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이윤자 노동안전위원장 “연구용역이 2월 말에 끝났고, 학교가 선정됐음에도 시설 개선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개선에 대한 어떤 기준도 나와 있지 않고,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폐암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정기적인 폐암 건강검진을 위한 예산 편성도 요구했다.

인력에 문제에 관해서도 배치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치 기준은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서울은 1명의 종사자가 가장 많은 인원을 감당해야 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비교적 배치기준이 낮은 세종시는 학생 100명당 1명의 노동자를 기준으로 뒀지만, 서울시는 149명당 1명에서 299명까지는 2명 수준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위기학생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추경 계획

‘교육후견인제’ 운영 어려워져 2월 서울시의회서 추경 준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교육후견인제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 해 동안 교육후견인 214명이 학생 352명에게 6301회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교육후견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후견인제는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결핍 요소에 대한 학생별 맞춤형 후견활동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교육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지

원 학생복지 사업이다.

교육후견인제는 13개 자치구, 31개 행정동, 마을기관 33개, 176개 학교와 유관기관이 연계해 교육안전망을 구축했다. 교육안전망 협의회 153회, 솔루션회의 383회를 통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후견활동도 지원했다.

지난해 교육후견인제는 총예산 68만 6000천원으로 운영됐다. 세부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 40만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5만원, 구비 13만6000원 등이다.

그러나 2023년에는 서울시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교육후견인제 포함)

이 예산 전액 삭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미교부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후견활동 지원을 받던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2023년 2월 예정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추경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후견인제 성과 공유회에서 A 초등학교 교장은 “위클래스에 수시로 방문해 상담받던 학생이 올해는 한 번도 위클래스에 방문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교육후견인의 지속적 교육후견 활동에 따른 학생의 안정적 학교생활에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하은 기자

# 서울시, K-뷰티 이플 전문인력 100명 배출

1기 비즈니스 아카데미 수료생 내년부터 ‘조향 전문가 과정’ 개설

서울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자, 개인 방송플랫폼을 통한 화장품전문 판매자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돼 활동할 수 있는 뷰티 산업 전문인력 100명이 처음 배출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배출된 전문인력 100명은 제1기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의 수료생이다. 그간 기술 교육에 집중돼 있었던 기존 공공·민간의 뷰티 교육을 보완하

고, 뷰티 산업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산업특화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4개 교육과정 ▲뷰티 라이브커머스 셀러 ▲브랜드 매니저 ▲뷰티브랜드 창업 ▲맞춤형화장품 전문가 등을 5개월간 이수했다.

2023년부터 서울시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작년 대비 2.5배인 250명(상·하반기 각 125명)으로 모집인원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향기 제품이 각광받는 경향을 반영해 ‘조향 전문가 과정’도 추가 개설한다.

/신하은 기자

# 경기도, ‘166일 맑은날’... 초미세먼지 최저

지난해,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가장 맑아

2022년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0 μg/m3로 2015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좋음’(15 μg/m3 이하) 일수도 166일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가장 많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

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8년 28 μg/m3로 가장 높았다가 2019년 26 μg/m3, 2020년 21 μg/m3, 2021년 21 μg/m3로 줄어든다 2022년 20 μg/m3로 역대 최저 농도를 기록했다.

도내 초미세먼지는 31개 시·군 110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측정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국립환경과학원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2022년 경기도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는 166일로 관측 이후 가장 많았으며 대기질이 양호했던 2021년보다 3일 늘어났다.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나쁨’ 등급 이상(36 μg/m3 이상) 일수는 40일로 2015년 이후 가장 적었다.

연구원은 초미세먼지 감소 원인을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정책(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산업시설의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등) 시행 ▲양호한 기상 조건 ▲국외 유입 오염도 감소 등으로 분석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27

1월 5일 (木) 음력 : 12월 14일

수도권 날씨 -6 ~ 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4/2, 동두천 -11/2, 가평 -13/3, 파주 -14/2, 서울 -6/4, 양평 -11/3, 인천 -5/2, 수원 -5/4, 용인 -5/4, 평택 -9/3, 백령도 -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중상하이 인구 70% 이상 코로나 확진” /사진 뉴시스  
▲美하원의장 선거 교착상태 빠지나... 매카시 사퇴시 스킨리스 유력

▲“니시무라 日경산상 5일 방미... 中반도체 수출 규제 등 논의”  
▲트럼프 “선거 패배, 낙태권 탕”... 집토끼 이탈 조짐, 캠프도 혼수



▲대만, 설 맞아 모든 국민에 25만원 지급... 초과세수 현금 배분  
▲해리스 전美대사 “유화 통한 北 억지안돼”... 협상 통한 비핵화 회의론 /사진 뉴시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